

February 12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

• 출애굽기 32:1-10

제2계명은 우상에 대해 다릅니다. ‘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’은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. 인간은 불안함 때문에 형상을 만들려 합니다.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가 있는 동안, 백성들은 조바심을 내다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듭니다(출 32장). 아론이 송아지를 가리켜 “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”(출 32:4)라고 선포하기에 이릅니다. 하나님은 그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책망하시며 진노하고 진멸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(출 32:8-10).

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?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거부하고,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담아 형상을 만들었습니다. 하나님을 형상 안에 가둔 것입니다. 그들은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, 내 상식선에 있는 하나님, 예상 가능한 범주의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“나는 스스로 있는 자”(출 3:14)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. 하나님은 나를 위해 마음껏 일하시기 위하여 경직된 틀을 부수라고 말씀하십니다. 나무, 강, 돌, 동물의 형상은 딱 그것만큼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우상은 유한하고 허탄합니다(사 41:29, 44:9).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기에 무한하신 분, 형언할 수 없는 참 하나님입니다.

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존재와 신비를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.

내 미천한 경험과 삶을 절대화하거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. 결국, 제2계명은 내 방식대로의 예배, 내 방식대로의 믿음에 대한 경종입니다.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(요 4:23-24). 하나님은 경험이나 장소나 인간이 정해 놓은 제도에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.

내가 만든 우상은
무엇입니까?

- ❶ 내가 기대하며 바라는 하나님 상이 있습니까?
- ❷ 물질/자녀/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대하지 않습니까?